



## 바닥 확인 과정 필요한 시점

### Why This Report

KOSPI가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해 바닥권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했고, 바닥권 형성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만약 1,910pt수준을 이탈하면 이전 저점대인 1,888pt 또는 1,850pt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. 삼성전자가 전주말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 증가했고, 전일 반등 시도가 나타나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엔/달러 환율의 상승과 불안한 중국증시의 움직임이 바닥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닥권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

#### KOSPI, 단기 바닥 형성 가능한 가격대

- 1,910~1,930pt 수준에 작년 7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 존재, 1,930pt 수준은 2011년 이후 등락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 가격대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단기 바닥 형성 가능함
- 다만 지난 1월 이후 중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 보였고, 5월 상승 과정에서 췌기형 패턴 형성 후 하락해 이전 저점대인 1,888pt 또는 하락 채널 하단선인 1,850pt 수준까지 조정도 가능
- 단기 등락 과정에서 이중 바닥 형성하는 등 단기 저점대 확인 과정 거친 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 필요. 상승 시 목표치는 2,000pt 수준으로 설정

#### 삼성전자, 추가 조정 가능 폭 제한적인 모습

- 삼성전자는 전주말 급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평소 3배 이상 증가했고, 채널 하단선에 도달한 가운데 반등 시도 나타나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성 높음
-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박스권 돌파와 안착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이어와 올해 저점대인 137만원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 낮은 모습

#### KOSPI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증시

- 엔/달러 환율이 단기 저점 형성 후 상승 중이고,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조정국면에 들어서 5월 저점대까지 하락 가능
- 엔/달러 환율과 관련된 운송장비 업종지수는 채널 상단선의 저항으로 하락 중이고, 중국증시와 관련된 화학, 철강 및 금속업종지수는 단기 저점대를 이탈해 이들 업종지수의 추가 하락 폭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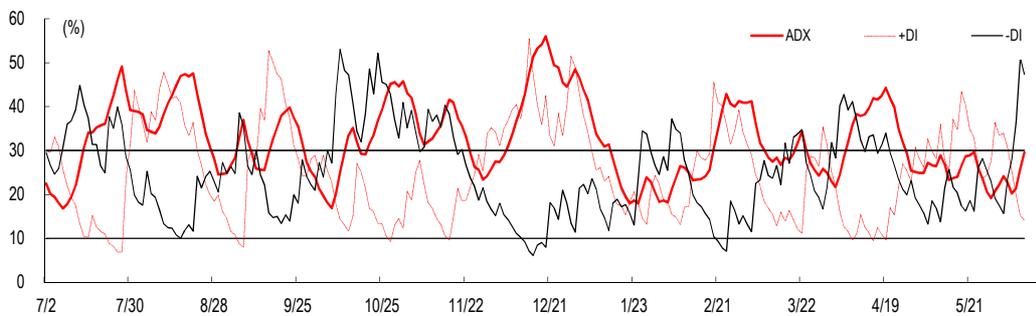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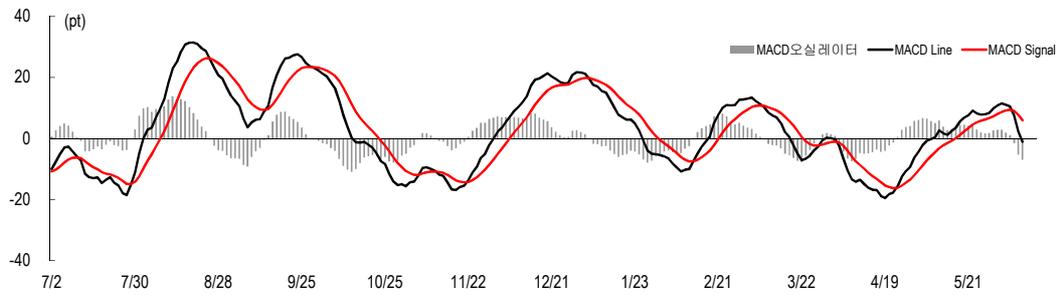
#### 단기 저점 확인 시 매수, 2,000pt 목표

- 1,930pt 수준에서 바닥 형성될 수 있지만 단기 이평선 회복 실패 시 추가 조정 가능
- 1,910pt 를 하회할 경우 1,888pt 또는 1,850pt 를 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전략 필요

## 주식시장 투자전략

### KOSPI, 단기 바닥 형성 가능한 가격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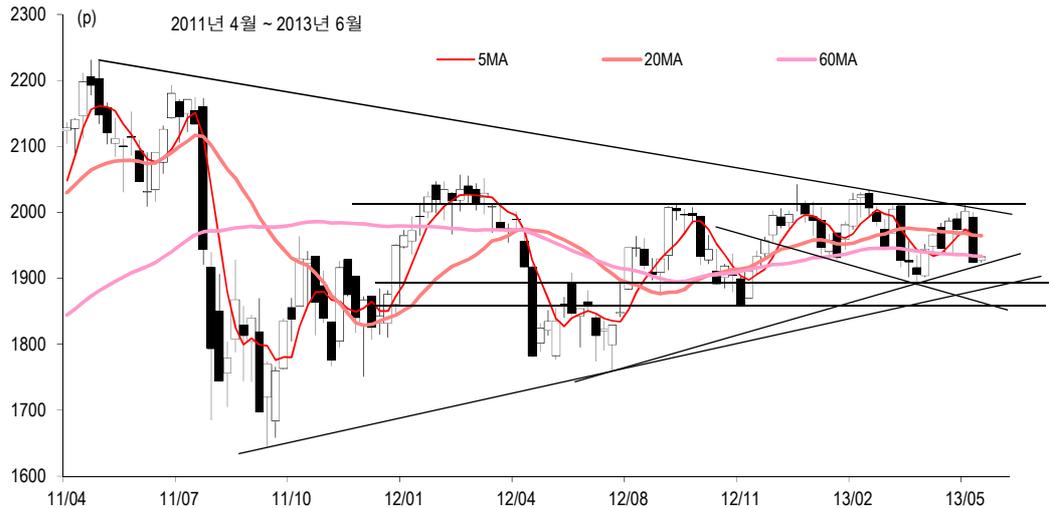
KOSPI 일봉, 5, 20, 60, 120, 200일 이동평균선, MACD, DMI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## 주식시장 투자전략

KOSPI 주봉, 삼각형 수렴 과정 진행 중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KOSPI 가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 시도에 나섰지만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마감되었다. 작년 7월 저점과 금년 4월 저점대를 연결한 추세선을 그리면 대략 1,910 ~ 1,930pt 수준을 지나고, 1,930pt 수준이 2011년부터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하면 전일 저점대 부근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모습이다. 이런 경우라면 위의 주봉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 삼각형 수렴과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, 상승 목표치는 삼각형 패턴 상단선이 위치한 2,000pt 수준으로 볼 수 있다.

한편 금년 초부터 KOSPI 흐름을 보면 중기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. 완만하나마 하락 추세가 형성된 모습으로 이런 관점의 흐름이 진행된다면 지난 4월 저점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단기 저점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. 특히 지난 4월 중반부터 나타난 상승국면은 췌기형 패턴으로 진행되었고, 이번 하락 과정에서 췌기형 패턴 하단선이 이탈해 췌기형 패턴이 시작된 1,888pt 또는 그 아래로 조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, 금년 2월과 4월 저점대를 연결하면 대략 1,850pt 수준을 목표로 볼 수 있다.

**즉, 1,910 ~ 1,930pt 수준이 바닥이될 가능성과 1,888pt 또는 1,850pt 수준에서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단기 저점대 형성 과정에서 소폭의 등락을 통해 이중 바닥을 만드는 점을 감안하면 일봉상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면 그 직전 단기 저점대를 바닥권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.**

### 삼성전자 추가 조정 가능 폭 제한적인 모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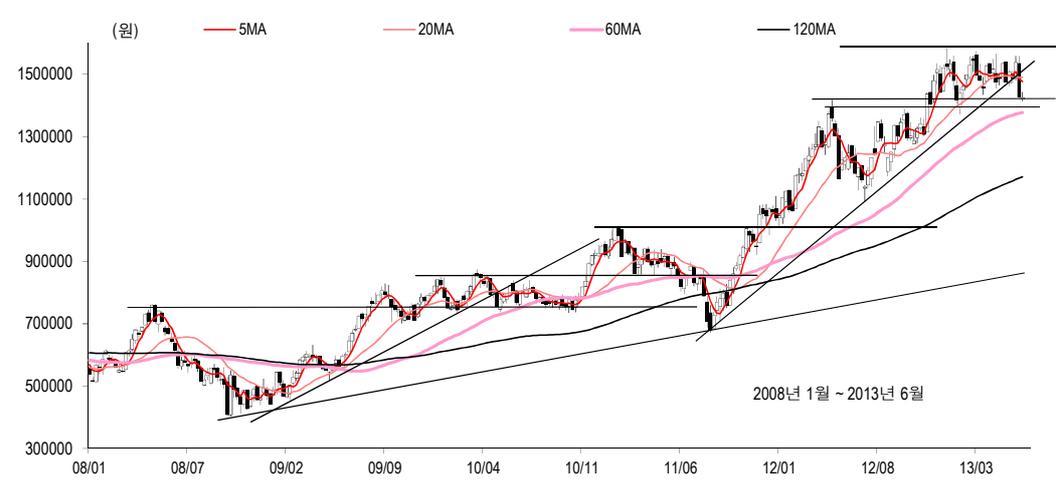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지난 주에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다.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급증한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한 만큼 매수세도 존재한다는 의미이고, 지지대가 지켜지는 경우 거래가 줄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. **전주말 삼성전자 거래량이 100만주를 넘었는데, 일반적으로 30만주 안팎으로 형성되는 거래량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이고, 박스권 하단선 부근에서 전일 낙폭이 제한된 점은 현재 수준에서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인다.** 다만 바닥권 형성 과정에서 소폭의 등락은 있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바로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.

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권 돌파와 안착을 지속하면서 상승추세를 이어왔다. 주봉상으로 140만원 전후한 수준이 2012년 고점대를 형성한 가격임과 동시에 현재 강한 지지대로 작용하는 수준이다. 따라서 현재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조정 가능 폭은 지난 1월 저점대인 137만원 수준이라 할 수 있다.

## 주식시장 투자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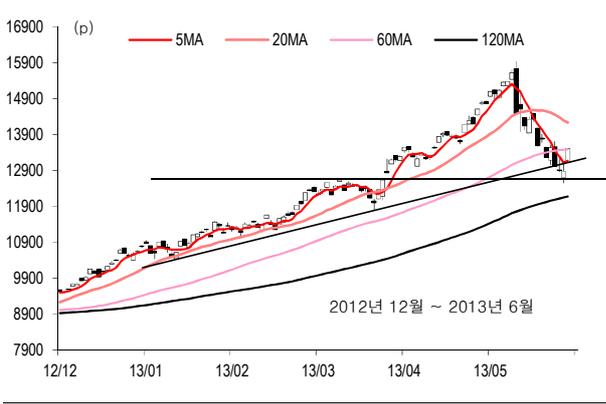
삼성전자 주봉, 박스권 돌파와 안착 반복하면서 상승, 박스권 하단선과 60주 이평선이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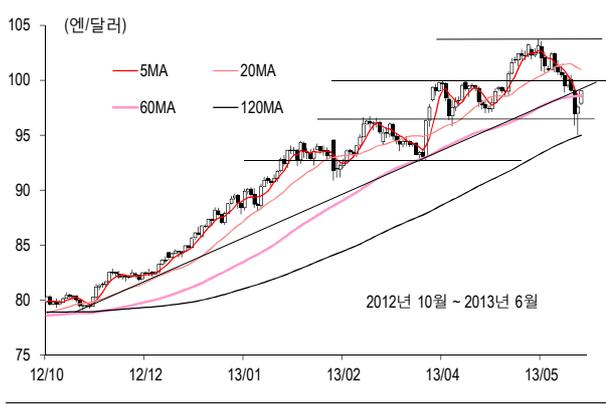
### KOSPI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본과 중국 증시

나케이 225 일봉,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



자료: Reuters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엔 / 달러 환율 일봉, 120일 이평선 지지로 반등



자료: Reuters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5월 23일부터 하락한 일본 증시가 전일 5%가까이 상승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난 3월 고점대가 지지대로 작용했다. 특히 최근 일본 증시는 엔/달러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, 엔/달러 환율 역시 5월 23일부터 조정기에 들어가 전주말 3월 고점대와 120일 이평선 등이 지지대로 작용하면서 반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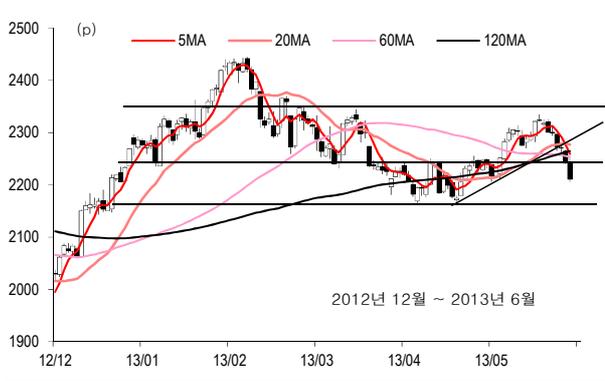
## 주식시장 투자전략

운송장비 업종지수 일봉, 채널 상단선의 저항으로 하락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상해 종합지수 일봉, 단기 고점대 돌파 실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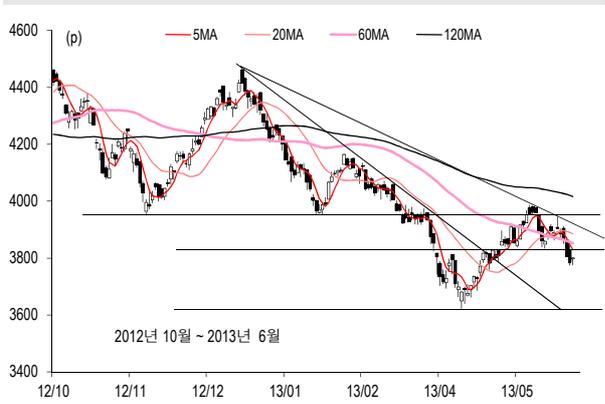


자료: Reuters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엔/달러 환율과 일본 증시의 상승이 부담스런 이유는 국내 수출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 자동차 관련주들이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지수의 경우 하락 채널 상단선에 도달한 후 3일째 하락 중이고, 채널 하단선까지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국면이 재개될 경우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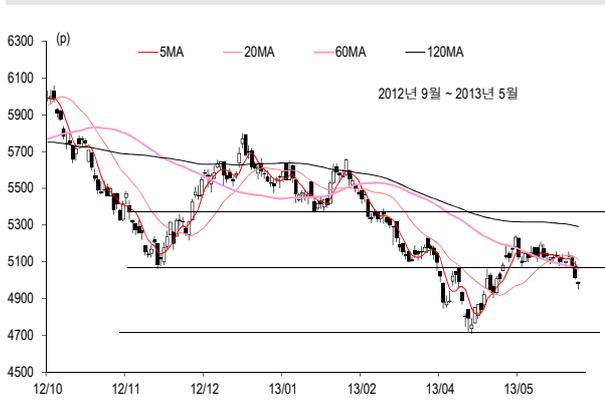
한편 소재 관련주에 영향을 주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최근 반등 과정에서 지난 3월 말 고점대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하락했고, 4월 중에 형성된 박스권 상단선의 지지대도 이탈해 2,161pt 에 위치한 5월 저점대까지 하락 가능한 모습이다. 관련된 화학 업종지수와 철강 및 금속 업종지수 역시 단기 저점대의 지지대를 이탈하고 조정 폭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. 정리하면, **앞서 삼성전자 주가가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 가능한 상황이라면 운송장비, 화학, 철강 업종 등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, 이들 업종들이 어느 수준에서 낙폭이 제한되느냐에 따라 KOSPI 단기 저점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.**

화학 업종지수 일봉, 단기 저점대 지지 실패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철강 및 금속 업종지수 일봉, 단기 저점대 지지 실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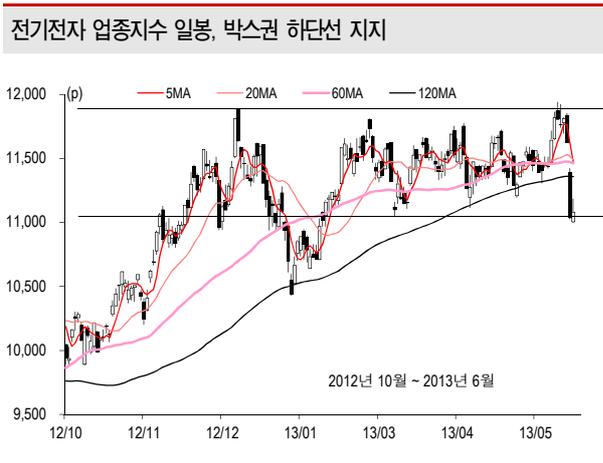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## 주식시장 투자전략

### 투자전략 : 단기 저점대 형성 후 매수

KOSPI가 단기 저점대가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했다. 1,910 ~ 1,930pt 수준에서 바닥을 만들거나 1,888pt 또는 1,850pt 까지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는 모습이다. 반등에 성공하면 상승 목표치는 장기 삼각형 패턴 상단선이 위치한 2,000pt로 볼 수 있다.

전주말에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 급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증했고, 전일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반등 시도가 나타나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.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동양증권 리서치센터

한편 엔/달러 환율이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에 나서 운송장비 업종 등 수출주들에 부담이 될 수 있고,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하락으로 소재, 화학주들이 흐름이 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. 기술적으로 운송장비 업종지수는 하락 채널 상단선의 저항을 확인하고 하락 중이고, 화학과 철강 및 금속업종지수는 중요한 지지대를 이탈한 모습이다. 이들 업종지수의 조정 폭이 시장이 단기 저점대를 형성하는 우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.

따라서 1,930pt 수준에서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되 단기 이평선 회복 실패 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뒀야 할 것이다. 업종별로는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성 높은 전기전자 업종과 이미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박스권 하락 목표치에 도달한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.